

# 레위기 정독

## 1. 제목

오경의 세 번째 책의 히브리어 이름은 ‘바이크라’이다.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는 뜻의 이 제목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과 연결된다. 성막이 완성되어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나 모세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출애굽기에서는 시내 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셨지만(19:3)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사람이 스스로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레위기에서는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 오경의 중심부에 있는 레위는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계시하신 책이다. 성막만 백성들 가운데 있고 백성들이 성막에 대해서 무지하여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긴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모세를 불러 백성 전체에게 가르치셨다. 이것이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는 책의 내용이다.

개역의 “레위기”라는 이름은 70인경에서 비롯하였다. 이 책을 레위기라고 부르지만 레위 지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의 봉사와 제사의 규례에 대한 책이다. 그러나 “레위기”라는 이름 때문에 이 책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책으로 오해하거나 ‘제사 편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1:2; 4:2 등)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레위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도 먼저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다음에(1:1-6:7) 제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가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상세히 그리고 친숙히 알기가 요구되었다(출 19:6).

## 2. 저자와 연대

창세기에 대한 해설을 참고하십시오.

## 3. 주제와 내용

많은 경우에 레위는 딱딱한 법이고 또한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을 다 알 수 없는 조문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책의 제목에 대한 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레위의 법들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의 완성과 민수기에 기록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사이의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레위의 법들을 그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출애굽기에 계시된 여호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배운다.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배우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서는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할 것도 레위기에서 배운다. 여기에는 여호와와 임재, 거룩함, 제사 등이 큰 주제로 제시되었다.

### 1) 여호와와 임재

#### (1) 성막과 제사에서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을 짓도록 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성막에 거하시면서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1:1).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께 나아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특히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당연한 말이지만 제사는 ‘여호와께 드리는 것’임이 강조되었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열납하시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가르쳤다(1:4, 9, 13, 17 등). 제사는 단순한 사람의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기쁘게 받으신다. 정당하면 받으시지만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징벌하신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난 후에 드리는 첫 번째 제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자 여호와께서 불로 사르신 것이 그 좋은 예이다(10:1-2, 16:2). 처음에 이처럼 엄격함을 보이셔서 후대를 위한 경계로 삼으셨다.

## (2) 일상생활에서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과 제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레위기의 후반부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도록 가르치는데, 그 부분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18:2 이하: 19:3-4, 10: 20:7 등)는 말씀이 반복된다.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신다. 종교(21-24장), 성(性, 18장, 20장), 이웃과의 관계 (19장) 등에서도 여호와의 임재를 본받아서 생활할 것을 가르치셨다. 이스라엘 진의 한 가운데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생활의 중앙에도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

## (3) 우상 숭배의 엄격한 금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했다. 이것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이다. 언약의 땅에는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괴이한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주위의 민족들의 하는 짓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다(17:7; 18:2-3, 21:19:31; 20:5-6, 23-27; 26:1).

## 2) 거룩함

레위기에서는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거룩함’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거룩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거룩함이 요구되었다.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된다(11:44-45; 19:2; 20:26 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생활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였는데,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거룩함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말이다. 즉 피조물과 구별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거룩하시다고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상 숭배나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 드리지 않을 때 그 거룩함이 손상함을 받는다(18:21; 19:12; 20:3; 21:6; 22:2).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방식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었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10:3)고 말씀하셨다.

거룩하다는 것은, 둘째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나 장소가 도덕적으로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안식일과 성막은 거룩한 시간이고 장소이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제물(10:17)이나 사람도 구별하여 드렸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나실인도 거룩하였고(6:6-8),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거룩하기 때문에 시체를 만질 수 없었다(21:1 이하).

### (2) 거룩함의 발전/확대

하나님과 제사장과 성전의 거룩함이 선언되었는데, 그 거룩함은 또한 백성 전체에게로 확대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내셨는데 그것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본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20:26)고 말씀하셔서 그들 가운데 성전을 두신 목적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데에 있음을 가르치셨다. 제사장의 거룩함과 성막의 거룩함은 백성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었다(참조 11: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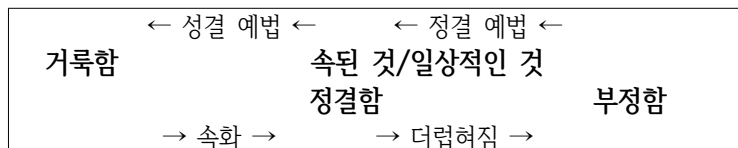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선언되었지만(20:8; 21:8, 15, 23, 22:9, 16, 32)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21:8). 하나님께서 거룩케 하심에 백성이 언약의 순종을 하면서 나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었다(20:8).

거룩에는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사랑도 포함된다. 19장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함이니라”(2절)고 말씀하신 후에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19:18)고 하셨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길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지 종교적인 예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매일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내리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는 말을 반복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행위가 여호와께 행하는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 3) 정결함

11-15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결한 것과 부정(不淨)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과 정결과 부정한 것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다음의 도표로 설명될 수 있다.

#### <거룩함과 정결과 부정의 관계>



레위기 10:10에서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라고 말하여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한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거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것을 모두 가리켜서 ‘속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속된 것은 ‘일상적인 것’이다. ‘일상적인 것’은 다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뉜다. 이 관계는 서로 연결된다. 부정한 것은 정결 예법을 통해서 정결한 것이 되며, 정결한 것은 다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짐으로써 거룩한 것이 된다.

이렇게 ‘거룩함-정결함-부정함’의 세 범주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는 사회 구조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있는 성막은 거룩하고 이스라엘 진(陣)은 정결하지만 그 진 밖은 부정한 세계이다. 따라서 문둥병에 걸린 자는 이스라엘 진 밖에 거하게 하셨지만 병이 나았을 때에는 결례를 행하고 이스라엘 진에 들어올 수 있었으며, 7일 후에 성소에 가서 속죄제를 드렸고 그 후에야 완전히 정결하다고 선언되었다.

부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부분으로 그것은 ‘영원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한 짐승이 부정함을 전파하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그것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 둘째는 출산과 문둥병과 피나 정액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시적 부정이지만 이것은 접촉하는 자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영원한 부정보다도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었다.

레위기의 다른 부분보다도 정결 예법에 대한 부분은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생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영역의 구분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하신 것들을 보면 대체로 두 영역에 걸쳐 있는 것들이다. 즉 물에 살면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11:10-12) 날개가 있는 곤충이면서도 네 발이 달려서 걷는 것들(11:21), 땅에 살면서도 걷거나 뛰지 못하고 흐물흐물 기는 것들(11:41-44) 등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선언하셨다. 이것은 곡물을 섞어 심지 말라고 가르친 데서도 그 뜻이 잘 드러난다(19:19).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사람이 짐승과 성적인 접촉을 금한 것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허무는 것이 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18:23). 근친상간을 금하거나 간음에 대해서 금지한 것도 사람의 잘못된 욕망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허무는 것을 중심으로 가르쳤다(18:6-20).

둘째, 주검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병(문둥병)에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였고, 생명이 되는 피 채 먹는 것이나 사람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하였다. 죽음이나 병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선언되었다. 동물 가운데서 맹금류를 금했는데, 그것들은 시체를 먹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11:13-19). 또한 생명의 영역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은 거기에 접촉하거나 이를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부정하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사는 세계를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을 피함으로써 거룩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었다.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정결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잘 나타내고 사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온전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질서가 잘 드러나는 것임을 배울 수 있다. 참된 거룩함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한 말이다(10:3. 참조 사 6:3).

#### 4) 속죄

하나님께서서는 피에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고 피를 통한 대속을 가르치셨다. 이것은 생명에는 생명을 요구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원칙이지만, 안수한 동물의 생명을 사람의 죽음 대신으로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나타내 보이는 일이다.

부정함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죽임을 당하였다(7:20-21; 22:3).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있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려고 속죄일의 예식을 제정하셨다(15:31; 16:16, 19). 그때 대제사장은 제사장과 성막과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였다(9:7; 16:3, 5, 24).

제사장의 위임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는 것과 연관이 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피의 반절은 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절은 (물을 타서) 우슬초로 백성들에게 뿌렸다. 제사장이 위임될 때에도 제사장의 오른 귓볼, 오른손과 발의 엄지가락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단 주위에 뿌렸다(8:22-24). 이것은 문둥병자가 정결케 되는 것과도 유사한 것이 있다. 문둥병자는 정결케 될 때 오른 귓부리와 오른 손과 발의 엄지가락에 피를 발랐다(14:14, 25).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일에서 백성 전체를 정결케 하는 일의 모형을 보는 것 같다. 이러한 예식의 공통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는가를 가르치셨다.

#### 4. 문예적 특징

레위기에는 8-10장, 24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과 규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과 규례는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1-16장에서는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그 성막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쳤고, 특히 17장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구체적으로 여호와와 거룩하심을 사회 경제적인 생활에서 본받으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레위기의 법과 규례들을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두고서 읽어야 할 것이다. 법은 역사적 현실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16장은 제사와 관련되어서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17-27장)은 가나안 땅과 백성 전체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친다. 성막의 정결함과 거룩함이 국가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넓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구조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사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출 19:4-5).

정결예법과 성결예법의 중간 지점에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있다(16장). 이것은 정결함과 거룩함의 핵심이 바로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음을 알려 준다. 16장의 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전반부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설명의 요약이면서 동시에 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속죄일에는 제사장과 성막과 민족 전체의 거룩함과 정결함이 함께 이루어졌다(16:19, 24, 34). 속죄일에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함과 정결함은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된다. 성전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의 정결함과 거룩함은 이스라엘 진 밖의 세상의 거룩함과 정결을 위한 것이다. 그 정결함과 거룩함은 ‘지성소 - 성막 - 이스라엘 백성 - 세상’으로 넓어지는 것이다.

17-27장에서는 관점이 확대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쳤다. 여기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성적인 관계, 제사장과 제물, 사람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1-16장과 17-27은 다루는 주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관점이 달라지는 것뿐이다. 17-27장은 나라와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거룩함과 정결을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후반부는 전반부와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이 된다. 처음에는 성전의 관점에서 밖을 보았고, 후반부에서는 밖의 관점에서 성전을 본 것이다. 전반부에서도 백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고(10:3; 16:33), 또한 후반부에서도 성소를 중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다(17:4 이하; 22:; 27:).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하신 것처럼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금하셨다(18:24-30). 가나안 땅을 성소라고 가르치셨다(출 15:17).

출애굽기에서 성소를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끝나는 것처럼, 뒷부분의 내용도 안식일과 희년에 대한 것으로 끝난다.

안식일과 희년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복과 저주에 대한 선언이 따른다. 이것은 레위기의 규례들이 언약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함축한다.

## 5. 신약과의 관계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따라서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님도 믿었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요 5:46).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내려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임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레위기에서도 깨닫는다.

### 1)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성취

(1) 그리스도의 완성: 무흠한 제물과 완전한 제사장, 거룩한 성전

구약의 제사에 대한 규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사실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은 히브리서이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온전한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흠이 없는 제물로서 참 하늘에서 드림으로써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책의 주제로 삼아서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이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 성막에서 ‘속죄소’라는 말과 동의어이다(롬 3:25).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거기에 들어가신 것이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엡 5:2).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마 27:51).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그 뜻은 십자가에서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에 들어가신 승천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히 9:24-26).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드리셨을 뿐 아니라(요 17장) 대제사장으로서 복을 주시면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 오르셨으며(눅 24:50-51), 또한 거기에서도 그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히 7:25; 요일 2:1).

속죄일에 피를 뿌렸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다(벧전 1:2; 히 9:13-14).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간청하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이다(히 12:24).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언약의 피”로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그의 언약의 피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는 원칙을 온전히 이루셨다(히 9:22).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속죄제의 제물은 진 밖에서 불사른 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히 13:11-12).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골 2:16-17).

구약의 절기가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고, 예수님께서서는 유월절 잔치를 마감하시고 그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대하게 하셨다. 또 '안식일 다음날'이 초실절인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날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셔서 주님의 백성도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고전 15:20, 23). 그날부터 일곱 주간이 지나면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 되는데,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신 하나님을 신약의 교회에 보내셨다. 세 가지 절기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장막절은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신다. 또한 희년의 제도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강설하시면서 이사야 61:1-3에 약속된 희년의 해가 주님의 성신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다(눅 4:18-19). 예수님께서서는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 정신을 실현시켜 나가기 시작하셨다. 구약에서는 율법의 제사와 의식법으로써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다(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9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약의 제사가 완성되었지만 그 완성을 단선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5)고 사도 바울은 가르친다.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들을 받고 길이 참으신 것은 구약의 제사들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고서 하신 것이다.

## (2) 그리스도인과 신약의 제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사의 공효를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고전 6:11; 벰전 1:2). 따라서 이들은 성도라고 불린다. 이처럼 성도는 확정적으로 거룩하다고 불리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생활에서 거룩함을 힘쓸 수 있다. 많은 경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힘쓴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경험을 놓고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레위기에서도 부정한 사람을 그 사람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의 관점에서 본 것처럼, 신약에서도 성도는 범주적으로 거룩한 자라고 가르치고, 그들이 그러한 위치에 있으므로 그들의 이름에 걸맞게 성신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로 구원을 얻은 다음에 법을 지키도록 요구되었다. 신약의 백성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순종”을 하기를 요구받았다(롬 1:5; 16:26).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길이다. 구원을 받은 자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롬 6:17-18).

신약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구원을 받았다.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는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아 있는 제물로 드리도록 하셨다(롬 12:1; 벰전 2:5). 찬미의 제사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이다(히 13:15-16).

구약에서 제물을 진 밖에서 태우듯이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이 세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도성을 찾아 나아가면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히 13:13-14). 구약에서 번제를 드리는 성도는 연기가 올라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것이다. 우리도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늘 우리의 지향점이 하늘에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한 일에 생각이 갇히는 경우가 많다(마 7:22).

## 2) 그리스도와 정결법

구약에서도 정결에 대한 규례는 외적인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규제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훈을 잘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고 고백하였다(시 24:3-4; 15:1-5).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정결법에 대한 것은 완성되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결법을 완성하실 때에 먼저 모세의 법대로 결례를 행하셨다(눅 2:22). 레위기 12:3의 규례대로 행하시면서 정결법을 완성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입

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함을 지적하셨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마 15:11 이하). 우리는 성신께서 믿음을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행 15:8-9) 또한 진리로 깨끗하게 되었다(벧전 1:22).

정결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고(막 5:41) 또한 문둥병자도 손을 대시면서 정결케 하셨다. 구약의 결례대로 하면 시체와 문둥병자를 만져서 부정하게 될 것이었지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부정함을 이기시고 생명과 정결함을 선언하신 것이다.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예수를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나음을 얻었다(막 5:25-34).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은 그를 더럽힐 수 없었고 오히려 그가 만지는 것은 곧 생명으로 바뀌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법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진 안은 정결하였지만 진 밖은 부정하고 사망의 세계였으며, 따라서 그 세계에 나갔던 사람은 반드시 정결케 한 후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광야로 아사셀 염소를 보낸 자도 정결케 하고 들어왔으며 또한 속죄제로 드린 짐승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 밖에서 태우고 들어온 자도 몸을 씻은 후에야 진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16:26-28). 히브리서 기자는 속죄일의 이 장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하였다(13:10-16). 즉 짐승의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사른 것처럼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진 것처럼 예수도 그의 백성을 자신의 피로써 거룩하게 하시려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대로 행하신 것이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취는 구약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영문 밖이셨으며, 영문 밖에 나아간 자는 부정하여졌지만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나아가자 부정과 사망의 세계는 바뀌어 죄인을 정결케 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도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라는 말도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영구한 도성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영구한 곳임을 가르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넘겨주었다(갈 4:21-31). 신자는 구약의 의식법들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장차 올 것을 찾으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또한 찬미의 제사와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음식에 대한 규례 때문에 생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분도 폐지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를 고넬료에게 보내셨다(행 10:9-16, 28; 엡 2:14-16). 하나님께서는 음식 구분을 없앴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교회에 들어왔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셨다. 또한 이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구분은 외적인 것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도록 하셨다. 구약에서도 외적인 규제는 마음의 문제를 알려 주시기 위함이었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참된 구분이 무엇인가가 더 밝히 드러났다.

### 3) 실제적인 거룩함

구약의 신자들은 제사를 통해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였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입은 자들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한다. 베드로전서 1:16에서는 레위기 11:44, 19:2 등을 인용하면서 모든 생활에서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명한다. 신약의 교회가 곧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자는 모든 생활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계 1:6; 벧전 2:9).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를 소원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 여러 음란한 일을 행한 것처럼, 현대에서도 재물에 대한 숭배와 더불어서 성적인 타락이 심해졌다. 현대에서 성적으로 문란해지면서 근친상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폐해가 더욱 크다.

그렇지만 현대만 그런 것은 아니다. 복음이 로마와 그리스 사회에 전파되었을 때에 그 사회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했고, 거기에서 신자들이 순결함을 지키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큰 문제였다(롬 1:24-27; 엡 4:19, 5:3-5; 고전 5:1, 11; 살전 4:5 등).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

고 .....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신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살전 4:3-5, 7-8)고 가르쳤다.

신자의 거룩함은 정결함과 연결된다. 정결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인데, 신자는 이 점에서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 신앙을 이유로 광신적인 행위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부정한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레위기서에서 가르치는 거룩함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큰 원칙이다. 교회 안의 약한 자에 대한 배려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표현되어야 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진의 밝은 더러운 곳이었다. 신약에서도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있지만 이것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것이다. 교회와 국가가 하나였을 때에는 그 구분이 쉬웠지만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교회의 영적인 특성이 더 잘 나타났을 때에는 그 구분도 영적인 것이 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아니다(고전 5:10). 그러나 두 영역 사이에서 미지근한 상태로 있으면 주님께서 토하여 내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이다(계 3:16).

#### 4) 현대인과 레위기의 제사법과 규례들

많은 현대 독자들에게 레위기는 어렵게 느껴진다.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여러 의식법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법을 잘 알고 제사에 상당 부분 참여를 하였겠고, 그들에게는 그 의식법들이 하나도 무거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구약의 의식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는 규격화된 예식은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의 발휘보다는 열등하다는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기독교인은 구약의 모든 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말로 구약의 의식법을 지나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을 가르치는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교회 안에서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지 결코 개인주의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과 연결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가르치는 구절들도 자세히 보면 교회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히 10:18-25). 구약의 의식법에 대한 무시는 자연히 그것이 성취된 교회에 대한 경시로 이어지고, 개인주의적 신앙생활로 이어진다.

이것은 값싼 복음의 영향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신자들에게 그들이 유월절의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잠깐 묵념하고서 사죄를 받도록 하지 않았다. 레위기 1장의 번제의 예를 들어서 보면, 그들은 무흠한 육축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갔고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주었으며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또 그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릴 때까지 그 자리에서 제사에 참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값싼 복음으로 그의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신 구약의 제의에 대한 무시는 자연히 다른 제의로 넘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섬기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제의, 즉 공적 예배가 쇠퇴한 곳에서는 세속적인 제의가 번성하기 마련이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화려한 식전 행사나 연예인의 공연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현대인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의 제전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제한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사는 것이 정결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지만 현대인은 성과 생명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한을 깨뜨리는 것이 사람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생명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창조주에게 대항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두신 생명의 신비를 규명하고 과학자를 창조주의 위치에 두려는 것이 현대 과학을 이끌어 가고 있는 원동력이다. 이것은 레위기의 용어를 빌리면 심히 불결한 일이고, 또한 땅이 토하여 내칠 만한 일이다.

이러한 부정하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로서는 이 시대를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여러 의식법의 내용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친숙히 알고, 또한 그 정신을 교회의 예배에서 잘 드러내어야 할 것이다.



레위기에서 난장은 제사장으로서 봉사할 수 없었다. 신앙의 장성이 없으면 언약의 실체가 이루어진 신약의 교회에 속하지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된다.